

2023학년도 논술 모의평가

인문계열 [문제 2] 해설 및 모범답안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2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인문계열 (사회·문화, 정치와 법, 국어,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흑인 차별, 기능론, 갈등론, 헌법, 차별 금지 소송, 시민 불복종, 공론장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과 ㉡의 관점에서 ㉢을 설명한 후,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와 (라)를 참조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 **기능론**과 ㉡ **갈등론**의 두 가지가 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적 희소 자원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된 결과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기능적 중요도가 다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그 사람의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비친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큰 보상이 주어지므로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게 되며, 사회 구성원들은 그러한 차등 보상을 공정한 것으로 여긴다. 즉, 기능론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로 인한 불평등은 구성원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므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갈등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지배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불공정하게 분배한 결과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적 희소 자원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권력이나 기득권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요인에 의해 차등 분배된다고 본다. 사회 불평등은 지배 집단의 권력 및 강제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게 된다고 본다. 또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나아가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갈등론

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공정한 것이므로 사회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나)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 **흑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였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인종 차별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러한 차별은 187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시행된 소위 「짐 크로(Jim Crow)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짐 크로법」은 공공 기관 등에서 인종을 분리하여 흑인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법들을 가리킨다. '짐 크로'는 어리숙한 흑인을 희화화한 쇼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다. 백인보다 교육 수준도 낮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흑인을 만만한, 어리숙한 사람으로 본 것인데, 이런 시각은 다시 흑인을 저임금의 육체 노동에만 합당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인종 분리와 차별을 제도화한 법들로 인해 흑인은 백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어 고급 인력이 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흑인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버스나 화장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조차 차별을 받았다.

흑인들은 「짐 크로법」에 따른 통치에 저항하였다. 1896년 호머 플래시(Homer Plessy, H.)는 열차의 백인 차량에 탑승하여 흑인 차량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인종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법이 연방 대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었지만, 연방 대법원은 '분리하되, 평등하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다)

제도적 차원에서 차별 예방이나 교정에 실효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법'이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런 법 조항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수많은 차별 사례 중 몇 가지만을 예로 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 금지에 관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영역을 이미 규정해 놓고 있는데도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차별을 막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법을 해석, 적용,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차별 금지 소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차별 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단돈 십만 원이라 할지라도 손해 배상금을 받아 내는 일이 이어진다면,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들이 계속되면 저력 있는 우리 시민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의 의의를 빠르게 학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뿐인 의식 개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는 의식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철폐 소송을 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법체계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새 법을 시행해 나가다가 다른 한계에 부딪히면 또 새로운 법률 제정 운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건전한 순환 구조 안에서 시민의 삶과 우리의 법체계는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라)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민주적인 법치 국가에서는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민에게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합법적인 규정이라도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때에 시민 불복종의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본다.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서 합법화 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민주적 법치 국가의 정당성을 수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 불복종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검사나 판사가 시민 불복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이들을 범죄자로 보고 통상적인 처벌을 내린다면 권위주의적 합법주의에 빠지고 만다고 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시민 불복종을 정당하지 않은 규정을 수정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성숙한 정치 문화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

하버마스가 공론장(公論場)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론장이란 근대 사회에서의 공적 논쟁과 토의의 장을 말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민주적 참여와 민주적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문화 산업의 발달에 의해 억제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 영역이 쇠퇴했다고 보았다. 공적 영역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통찰력과 정의감에 호소할 의도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전제는 다수의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 불복종의 기본은 다수의 대중이 공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23학년도 광운대학교 논술 모의평가 문제 해설

[인문계열]

● 출제 의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었다. 가령 장애인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즉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정당한 시위인지 시민의 편의를 불모로 한 '나쁜' 시위인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크게 일어났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동남아 노동자의 전입이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둘러싼 논쟁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흑인 차별을 예시로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출제했다.
- 인문 논술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지문을 활용함으로써 통합형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사회 문제를 윤리적 문제와 결합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치와 법의 영역과도 연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결국 차별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융합형 사고를 키우도록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 본 문제의 논제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에서 시작된다. 기능론과 갈등론이 그것인데, 각 관점에서 흑인에 대한 백인의 차별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지 물었다. 그리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적으로, 시민 운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별 금지 소송과 하버마스의 시민 불복종을 통해 설명했다.
- 제시문 (가)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두 시각을 정의하고 설명한다. (나)는 187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행해진 미국의 흑인 차별에 대해 설명했다. 김두식 교수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의 일부인 (다)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차별받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보여준다. (라)는 하버마스의 시민 불복종과 공론장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 본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정치와 법, 국어, 윤리와 사상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설명, 예시, 주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제했다.

●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133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범석 외	지학사	2019	18	제시문 (나)	○
고등학교 국어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260-263	제시문 (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9	194	제시문 (라)	○

● 채점 가이드라인

- ① '기능론'과 ㉠의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연결해서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앞부분 참조
 - 기능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5점**
 - **Key Words: 사회적 기여도, 차등 분배, 불평등, 적재적소, 사회 유지와 발전, 합리적으로 분배된 결과**
 - 기능론을 ㉠과 연결해 그 이유를 설명한 경우 **5점**
 - **Key Words: 흑인의 사회적 중요도 약함, 저임금의 육체 노동에 합당, 차등 타당**
- ② '갈등론'과 ㉠의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연결해서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뒷부분 참조
 - 갈등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5점**
 - **Key Words: 지배 집단, 기득권 유지, 사회적 자원, 불공정한 분배**
 - 갈등론을 ㉠과 연결해 그 이유를 설명한 경우 **5점**
 - **Key Words: 인종 분리와 차별, 동등한 교육 불가, 고급 인력의 길 차단, 지배 집단의 강제, 불평등한 계층 구조 재생산**
- ③ ㉠의 "흑인에 대한 차별"을 (다)의 지문과 연결해 대안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앞부분 참조
 - **Key Words: 직접적 소송, 차별 금지 소송, 헌법, 새로운 법률 제정, 시민 의식 향상**
- ④ ㉠의 "흑인에 대한 차별"을 (라)의 지문과 연결해 대안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뒷부분 참조
 - **Key Words: 하버마스, 시민 불복종, 성숙한 정치 문화, 다수의 공감대, 공론장**

- ⑤ 위의 ①,②,③,④의 논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핵심 키워드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문장의 논리적 완결성과 **답안의 내용적 완성도가 높을 경우 최대 5점**
- ⑥ 위의 ①,②,③,④의 논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두 논제에 대한 논술 분량이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안배되어 있으며, 표현이 자연스럽고 문장에 비문이 없어 **답안의 형식적 완성도가 높을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 모범답안

흑인에 대한 차별을 기능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화된다. 기능론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로 인한 불평등은 구성원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므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 흑인은 백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없고 저임금의 육체 노동에 합당하기 때문에 차등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갈등론에 따르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시각의 사회 불평등 현상은 지배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불공정하게 분배한 결과이다. 인종 분리와 차별을 제도화한 법률로 인해 흑인은 백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없어 고급 인력이 될 길이 차단당했는데, 이것은 지배 집단의 권력 및 강제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 것이다.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다)에서는 직접적으로 차별 금지 소송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헌법이 있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법을 해석, 적용,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 금지 소송을 통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도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 라)의 하버마스는 합법적인 규정이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때에는 시민 불복종의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본다.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지 않은 규정을 수정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고, 성숙한 정치 문화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만 시민 불복종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공론장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95자)